앞뒤 다른 보고서… 겉도는 성과주의 예산제

도의회 행자위, 道 상대 성과계획·보고서 문제 추궁
의원들 "목표·결과물 달라 의회 심사 요식행위 전락"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성과계획서)와 결과(성과보고서)가 다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이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올해 결산을 위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지난해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다른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지만 여전하다. 도의회가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요식행위냐"며 "이월금과 집행률 문제가 반복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성과보고서만큼은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면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도 "어제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도 앞뒤가 안 맞은 성과보고서가 가장 문제였다"며 "의회 내에서도 심각성을 느껴 승인을 하느냐 아니면 시정을 요구하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심히 염려스럽다. 내년에도 재현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보내기 위해서는 분석하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결산은 다음 예산을 어떻게 쓸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보면 도청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6.1%(890억원), 제주시 9.9%(189억원), 서귀포시 7.7%(167억원)이고, 읍면동은 2.8% 정도"라며 "예산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하느냐의 문제이므로 잔액 비율이 낮은 읍면동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지난해 발주한 ▷경제산업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체계 구축 연구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 용역은 지난해 결과물이 나왔어야 하지만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며 "추진단 전체 예산의 50%를 투입하는 연구 용역인데도 집행액이 차이 나고 결과물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기간보다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연기시키는 중"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광어 소비부진? 주사 자국 탓"

도의회 농수축위 회의서
친환경 양식 등 대책 촉구

제주산 광어에서 항생제를 투여한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관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12일 진행된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제2차 회의에서 최근 제주의 수질 악화가 광어 항생제 투여로 이어져 소비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원장은 최근 군납 확대 등 소비촉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광어 양식산업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실토했다.

김 원장은 "솔직히 말하면 수질악화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질병률이 높아지다 보니 항생제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며 "항생제 사용 과정에 경구투여하면 좋겠지만 폐사하는 걸 보면서 효과가 더 높은 주사제를 쓰다 보니 자국이 남아 소비자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육지에서 광어 불매운동을 벌이는 원인도 그것 때문이냐"며 "친환경 양식 방안과 중장기적 대책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연구원이 항생제 잔류 분석은 철저히 진행하고 있지만 주삿바늘 자국이 남아서 문제"라며 "노르웨이 연어처럼 앞으로 광어도 모든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면 소비자가 신뢰하는 양식 품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北, 美에 친서… 비핵화 협상 재개되나

북미 정상회담 1주년 기념
트럼프 대통령 "고맙다" 화답
故 이희호 여사 장례에는
조문단 대신 조의문 등 전달

북한과 미국의 역사상 첫 정상회담으로 기록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12일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된 이후 첫 친서 교환으로 이를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김위원장으로부터 어제(10일)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친서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고 멋진 친서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과거의 '통미봉남'(남측을 봉쇄하고 미국과 대화) 방식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2개월이 지나가도록 답변을 주지않고 있다. 지난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면서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북한은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카지노 대형화 제한 해법 '안갯속'

오늘 해당 조례 심사 예정
상임위 내부서도 시각차
"사행 산업 vs 재정 수입
모든 측면 고려해 논의"

제주도의회 문광위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상대로 카지노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왼쪽부터 이경용 위원장, 문종태·강민숙·이승아 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를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상임위 내부에서도 의원 간 미묘한 견해 차이가 감지돼 의회 내부에서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의 전철을 밟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 발의해 13일 심사할 예정인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결부시켜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을 상대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카지노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연구용역은 당초 올해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다"며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면허권 양도양수 방식을 통한 이전 허가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면 빨리 끝내야 제도를 정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 문제와 관련해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인데, 조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압력을 행사하는 느낌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드림타워도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이전해 랜딩카지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위락시설 계획을 이미 허가해놓고 사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제주도의 입장이 불분명하다"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오픈카지노라면 우리 국민들도 출입해 사행산업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임위에서는 사행산업과 재정수입 측면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다"며 "단지 면적이 기존보다 2배 는다고 해서 대형화인지, 규모의 경제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아닌지 본질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해양수산연구원 국제세미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김문관)은 오는 14일 개원 20주년을 맞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 해양수산 연구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호주, 일본, 중국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해양수산 연구 동향과 전망 등을 논의한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국내외 연구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연구 기관의 내실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현황과 향후전망을 공유하고 지방 수산연구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토론한다. 고대로기자

제8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제주4·3은 과거의 모든 국가적 비극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제주4·3의 아픈 상처를 문학작품으로 승화함과 아울러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수준 높은 문학작품의 출현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제8회 〈제주4·3평화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주제 4·3의 진실, 4·3의 정신(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민주발전)

장르 및 분량 시 | 1인당 10편 이상
소설 | 200자 원고지 800매 이상(※원고지 20매 내외 줄거리 첨부)
논픽션 | 200자 원고지 400매 이상(※원고지 20매 내외 줄거리 첨부)

제출사항 한글 문서 파일(HWP, 이메일) 제출

제출양식 한글 문서 파일
글씨체 | 한글 또는 워드의 기본글씨체(바탕체)
글씨크기 | 제목 16(진하게), 본문 12
편집용지 | A4(위 20㎜, 아래 15㎜, 좌·우 30㎜, 머리말·꼬리말 15㎜)
쪽번호 : 가운데 아래

응모자격 국적, 거주지, 연령, 기성·신인 제한 없음

마감 2019. 12. 13(금)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당선작발표 2020년 3월(제주4 · 3평화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상금 9,000만원(소설 5,000만원 / 시 2,000만원 / 논픽션 2,000만원)

저작권 당선작은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작권 및 2차적 저작권을 보유하며 고료를 웃도는 인세는 당선자에게 지급함

기타
◆ 미발표 한글 작품이어야 하며 응모서류 및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이메일 발송 한글문서파일(HWP)의 겉표지에 응모자의 성명(필명의 경우 본명 별도 기재)·주소·연락처·이메일 필히 명기
◆ 분량 미달, 제출서류 미비,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미흡할 시 응모 인정하지 않음
◆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 국내외 여타 기관 또는 매체(신문, 인터넷매체 포함)에 기 발표 작품
–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상당 포함된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보낼 곳 이메일 : jjp43@hanmail.net(한글문서파일 HWP 제출)

문의 064)723–4388
http://www.jeju43peace.or.kr(알림/소식–공지사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직원(연구직, 일반직, 기간제) 채용 공고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6월 13일

제주4·3평화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5명

구분	직급	인원	주요업무
계		5	
정규직	연구직 4급	1	• 4·3 추가진상조사 • 4·3 관련 조사·연구 • 4·3 관련 정책과제 연구 • 연구 운영 및 출판 관리 등
정규직	일반직 6급	1	• 고유목적사업의 실무행정 전반 • 기관장 수행 등
기간제	대체인력 (연구직(학예) 5급 상당)	1	• 4·3평화재단 사무처 업무 • 공원 및 기념관 학예업무 등
기간제	계약직	2	• 4·3평화재단 사무처 업무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업무 보조 등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자격
○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 학력(연구직 예외)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만60세 까지(재단 정년 적용)
○ 거주지 요건
• 연구직 : 지역제한 없음
• 일반직 및 기간제 : 채용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둔적이 있거나, 두고 있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

직렬	직급	자격기준
연구직	연구직 4급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및 활동에 종사한 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및 활동에 종사한 자
일반직	일반직 6급	○ 자격기준 없음
기간제	대체인력 (연구직5급 상당)	○ 자격기준 없음
기간제	계약직	○ 자격기준 없음

3. 입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서식) 교부 : 제주4·3평화재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6. 14(금) ~ 2019. 6. 24(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접수
※ 온라인 및 우편접수는 6월 24일(월)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온라인 접수 : 이메일(jeju43@jeju43peace.or.kr) 로 접수
(메일 제목에 응시직렬(연구직, 일반직, 대체인력, 계약직 명시))
– 접 수 처 :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총무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 인사담당자 앞 우)63313

4. 채용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 서류전형
• 1차 합격자 선발인원 : 5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발표 : 제주4·3평화재단홈페이지 공고('19. 06. 27)
○ 2차 시험 : 면접시험('19. 06. 28)
• 공통 평가항목 : 전문성·창의력·의사발표 능력·인성과 품성·우대사항 등
• 연구직 : PT발표 및 영어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 공고('19. 07. 01)

5. 합격자 대우
○ 보수 및 복무
• 보수 : 제주4·3평화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 연구직 4급 :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
– 일반직 6급 : 일반직공무원 9급 상당
– 기간제
· 대체인력 : 일반직공무원 8급 1호봉 적용
· 계약직 : 시급 9,700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복무 : 제주4·3평화재단 복무규정 적용
•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간(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대체인력 : 임용일 ~ '19. 12. 31
· 계약직 : 임용일로부터 5개월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된 세부사항 (결격사유, 우대사항, 제출서류, 지원시 유의사항) 등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의 해당 채용공고를 참조바랍니다.